이강인이 13일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PSG와 로리앙의 2023-2024시즌 리그1 개막전에 출전해 동료와 사인을 주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

메시 공간서 이강인이 즐겼다

이강인 리그1 PSG 데뷔전
메시 자리 훌륭하게 소화
빼어난 활약에 경기 MVP
팀은 로리앙과 0-0 무승부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이강인(PSG)이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데뷔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PSG는 13일(한국시각)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린 로리앙과의 2023-2024시즌 리그1 개막전에서 0-0으로 비겼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은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격해 82분을 소화했다.

PSG의 공격은 상대의 극단적 수비에 꽉 막혔다.

이강인은 '데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PSG의 공격을 지휘하는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 측면에서 중앙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공격의 물줄기를 텄다.

이는 지난 시즌까지 '이 시대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PSG에서 하던 역할이다.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이강인을 '메시의 후계자'로 봐도 무방했다.

리그1 사무국도 이 점에 주목했다.

리그1은 매 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매치 리포트에서 '경기 최우수선수(MVP)' 격인 '더 플레이어(The Player)'를 선정하는데, 이날 이강인에게 이 타이틀을 붙였다.

리그1은 "이강인과 (왼쪽 공격수로 나선) 마르코 아센시오는 PSG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은 점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 다른 날이었다면 승리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이어 "메시가 남긴 공백은 여전히 커 보였지만,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구단은 경기 결과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PSG 선수가 된 자신의 활약에 만족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이강인의 빼어난 활약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축구 기록 사이트 풋몹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날 PSG 공격진에서 가장 많은 볼 터치(85회)를 기록했다.

프리킥, 코너킥을 도맡으며 데드볼, 오픈 플레이 상황을 가리지 않고 팀 공격을 주도했다.

드리블은 4차례 시도해 3차례 성공했으며, 57%의 롱패스 성공률을 보였다.

크로스 성공률이 17%에 그친 게 다소 아쉬웠을 뿐이다. /연합뉴스

토트넘 주장 손흥민 "놀랍고 자랑스러워"

요리스에게서 완장 넘겨 받아
포스테코글루 감독 "최고 선택"

한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사진)이 이제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에서도 주장 완장을 찬다.

토트넘은 지난 1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클럽 주장으로 임명됐다. 위고 요리스에게서 완장을 넘겨받는다"고 밝혔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제임스 매디슨이 부주장으로서 손흥민과 주장단을 꾸렸다.

손흥민은 구단을 통해 "토트넘과 같은 큰 팀의 주장이 돼 영광스럽다. 놀랍고 자랑스럽다"며 "이미 모든 선수가 그라운드 안팎에서 주장인 것처럼 느껴야 한다고 말해뒀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즌, 이 유니폼·완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쏘니(손흥민의 애칭)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갖췄다. 새 주장으로 그를 고른 건 이상적 선택"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두가 손흥민이 세계 정상급 선수라는 걸 안다. 라커룸에서 모두의 존경을 받는다"며 "그저 유명해서는 아니다. 한국의 주장인 점에 더해 이곳에서 이룬 성취를 함께 따졌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에 앞서 EPL에서 가장 먼저 정식 주장으로 임명된 한국인은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다.

박 디렉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이적한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에서 공식적으로 주장직을 맡았다.

손흥민은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역대 최장수 주장'이기도 하다.

2018년 9월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데뷔전부터 주장을 맡은 손흥민은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등 유럽파가 소집되지 않은 대회를 빼면 줄곧 완장을 찼다.

본래 토트넘의 주장은 2015-2016시즌부터 프랑스 출신 골키퍼 요리스의 몫이었다.

그러나 요리스와 결별이 유력한 가운데 차기 주장 1순위 해리 케인마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면서 완장이 손흥민에게 돌아갔다.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은 어느덧 최선임급이 됐다.

요리스를 빼면 현재 손흥민보다 오래 팀에 머문 선수는 에릭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뿐이다. 둘 다 2014년 입단했지만, 그간 손흥민만큼 오래 '붙박이 주전' 위상을 누리지는 못했다.

실제로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의 전성기였던 2018-2019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우승 당시 베스트 11로 중용되지 못했다. 당시 11명 중 남은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게다가 둘 다 수비수로서 최근 경기력이 떨어져 팀 내 입지도 크게 줄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63골을 내주며 상위 10팀 중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연장서 6m 버디…이예원, 두산 위브 초대 챔프

KLPGA 시즌 2승

이예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이예원은 13일 제주도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연장전 버디로 신인 김민선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4언더파 68타를 친 이예원과 2타를 줄인 김민선은 똑같이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최종 3라운드를 마친 뒤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벌였다.

이예원은 연장전에서 6m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4m 버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김민선을 제쳤다. 지난 4월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거둔 지 넉 달 만에 거둔 생애 두 번째 우승이다.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은 올해 처음 열린 대회라 이예원은 초대 챔피언이라는 영예도 곁들였다.

이예원은 두 번 우승을 모두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골프장에 따냈다.

첫 우승을 올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이 열린 롯데 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은 자동차로 15분 거리다.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을 받은 이예원은 박지영을 제치고 상금 1위(7억2592만원)로 올라섰고, 대상 포인트에서는 박지영에 이어 2위로 도약했다.

이예원은 박민지, 임진희와 함께 다승 부문 공동 선두(2승)에 올라 각종 개인 타이틀 경쟁에서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이예원은 작년에는 신인왕에 올랐다.

13일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한 이예원이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예원은 또 지난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박민지에게 당한 연장전 패배의 아쉬움을 다소나마 씻었다.

지난해 데뷔한 이예원은 연장전은 올해 두 번 치렀다.

이예원은 "처음 치른 연장전에서 진 다음에 다시 기회가 오면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설욕했다"고 기뻐했다. /연합뉴스

한국계 페굴라, 캐나다오픈 테니스 결승 진출

1위 시비옹테크 제압

제시카 페굴라(3위·미국)가 세계 1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를 물리치고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캐나다오픈(총상금 278만8468달러) 결승에 진출했다.

페굴라는 12일(현지시각)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단식 준결승에서 시비옹테크와 2시간 30분 승부 끝에 2-1(6-2 6-7〈4-7〉 6-4)로 이겼다.

페굴라는 엘레나 리바키나(4위·카자흐스탄)-루드밀라 삼소노바(18위·러시아) 경기 승자를 상대로 통산 3번째 투어 대회 단식 우승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지난해 과달라하라 대회에 이어 2년 연속 WTA 1000시리즈 대회 단식 우승을 이룬다.

WTA 1000시리즈는 4대 메이저 대회 바로 아래 등급에 해당하며, 1년에 9개 대회가 열린다.

시비옹테크와 상대 전적에서는 3승 5패로 격차를 좁혔다.

제시카 페굴라

페굴라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킴 페굴라를 어머니로 둔 한국계다.

킴 페굴라와 아버지 테리 페굴라가 천연가스, 부동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으로 7조원이 넘는 재산을 일군 재력가여서 '갑부의 딸'로도 유명하다.

직전에 참가한 바르샤바오픈에서 올해 4번째 단식 우승을 일군 시비옹테크는 이날 패배로 연승 행진이 8경기에서 멈췄다. /연합뉴스